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05~0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0

OCTOBER 2014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October

2014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in Museum Courtyard

2014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1월 공연 일정 미리보기
토요상설공연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1일	우리가락 좋을시고	서울오라토리오	기악
8일	문숙경의 춤판	문숙경	무용
15일	산이로구나	경기도산이제도당	무속 창작
22일	진경희의 춤	진경희	무용
29일	박물관에서 함께하는 오복락락 콘서트	월드 퓨전 시나위	전통 음악

일요일민속무대

2일	해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남사당 풍물놀이'	사)신명나눔	연희
9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담양농악	사)우도농악담양보존회	연희

10월 정자나무그늘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Folk Music Concerts for October, Museum Courtyard
2014년 10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0.01. 가야금병창 Gayageum Byeongchang by LEE Seon -이선

10.08. 명품 국악 프로젝트 흥&樂 Masterpiece Gugak Project Sound & Joy by Sori & Rhythm & Pan Art Group Osan -소리&리듬&판 예술단 五山

10.15. 오복 락락(樂樂) Obok Rakrak by World Fusion Sinawi -월드 퓨전 시나위

10.22. 락음과 함께해요 Let's get together with Rakeum by Rakeum Gugak Group -락음국악단

10.29.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 Yecheonhwajaeosu by Yeon -연(蓮)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 입니다. Free Admission

10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4년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864회

조갑녀류 정명희의 춤 '나비가 되어'

Jo Gap-nyeo Ryu Dance by Jeong Myeonghui 'Becoming a butterfly'

10.04.



제865회

국악그룹 동화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국악콘서트 '꿈꾸는 동화'

Gugak Concert 'Fairytale Dreams' by Gugak Group Donghwa

10.11.



제866회

김희진의 전통춤 '시월을 그리다(花鳥風月)'

'Draw October Landscape(Hwajjopungwol)' Korean Traditional Dance by Kim Huijin

10.18.



제867회

가을이 오는 길목에 춤으로 수놓다

Decorate Fall with Beautiful Dance Moves

10.25.

10월 일요일열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for October,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4년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58회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

Yecheonhwajaeusu(如蓮花在水): Like a lotus flower floating on the water

10.05.



제359회

신명나는 탈춤 한미당 양주별산대놀이

Exciting Mask Dance Performance 'Yangju Byeolsandaenori'

10.12.



제360회

활력소를 드립니다. 신명나는 연희한판! '도리판Good'

Invigorating traditional performances! 'Doripan Good'

10.19.



제361회

신명나는 화성두레굿과 무동놀이

Exhilarating Hwaseong Duregut and Mudongnori

10.26.

우리민속 10 OCTOBER 2014
한미당



조갑녀류 정명희의 춤 '나비가되어'

Jo Gap-nyeo Ryu Dance by Jeong Myeonghui 'Becoming a butterfly'

2014. 10. 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국악의 성지 남원 춘향제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명무 조갑녀 선생의 춤을 여섯 짝 딸인 정명희가 준비했다.

조갑녀류 춤사위 중 승무는 고종의 어선에 나섰던 이장선(1866-1939)에게서 전해 내려온 춤이다. 장단과 복식 춤사위가 궁중무에 바탕을 두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춤으로 춤의 기본과 정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춤이다. 또한 조갑녀류 춤사위 중 빼놓을 수 없는 춤으로 민살풀이 춤을 선보인다. 민살풀이춤은 호남 무속 살풀이 장단에 엄격한 규칙이 있어 보이지만 자유롭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즉흥춤이다. 손에 드는 소품이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속멋으로 정중하고 무겁게 맨손으로 추는 살풀이 춤이며 예인으로서 예도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의 깊은 한과 멋을 흥으로 승화시켰다.

Jeong Myeonghui, a sixth daughter of the master Jo Gap-nyeo, presents her mother's dance pieces. Jo Gap-nyeo's dance works contain the history of Chunyang festival in Namwon, a sacred pla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eungmu which is one of dances of Jo Gap-nyeo school has been transmitted from the last master of Joseon's court dance, Lee Jang-seon (1866-1939). Rhythms, costumes and steps used in seungmu are rooted in court dance tradition. This particular dance piece has retained the basics and spri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describes the originality of the Koreans as it is. Also, 'Minsalpurichum' which is indispensable piece of Jo Gap-nyeo's dance works will be presented. In minsalpurichum, a dancer performs with a traditional shamanic rhythm of Honam region, 'salpuri'. Minsalpurichum, though seems to have rigid rules of style or movement, is an impromptu dance encompassing free spirit yet moderate characteristics. Jo's minsalpurichum is a minimalist version; performed with bare hands rather than using a cloth. Through a dancer's heavier hand movements and dignified steps, th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sentiment of deep sorrows of Korean people sublimated into merriment and mirth.

공연순서 PROGRAM

- 01 가야금병창 Gayageum Byeongchang
- 02 승무 Seungmu
- 03 소고춤 Sogochum
- 04 화선무 Hwaseonmu
- 05 판소리 Pansori
- 06 민요조곡 Minyojogok
- 07 진도북춤 Jindobukchum
- 08 민살풀이춤 Minsalpurichum



대표 정명희(조갑녀류 전수교육조교)
출연 정경희, 이계영, 박상희, 김윤희,
이지영, 박혜정, 김소희, 황상은

국악그룹 동화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국악콘서트 '꿈꾸는 동화'

Gugak Concert 'Fairytale Dreams' by Gugak Group Donghwa

2014. 10. 1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2011년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결성된 국악그룹 '동화'가 1집 앨범 '꿈꾸는 동화'의 수록곡들을 관객들과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공연을 준비하였다.

국악그룹 '동화'는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악기 선율을 가지고 한국적 멋과 현대의 맛을 온전히 뽐내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균형 있는 결합을 통해 대중들이 보다 쉽게 국악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꿈꾸는 동화'는 추억과 상상을 모토로 하여 관객들이 음악 속의 주인공이 되어, 곡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고, 때로는 주어진 키워드를 가지고 추억하며, 연주자와 함께 꿈꾸는 공연이 될 것이다.

A gugak group 'Donghwa', which was formed in 2011 with the intention of interacting with the world through music, will present songs from their debut album entitled 'Dreaming Fairy Tale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Donghwa' pursues efforts to make gugak, Korean classical music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by combining both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contemporary pop music in a balanced way. The group writes songs that express both Korean style and modern taste with the unique sounds of Korean instruments. During the 'Dreaming Fairy Tales', a nostalgia and imagination-themed performance, the audience would be able to become the main character of each song and imagine stories behind the songs, sometimes recall the memories they miss following the lyrics.



공연순서 PROGRAM

- 01 오늘은 맑음 It's sunny today
- 02 꿈에 In dream
- 03 아기나비 A baby butterfly
- 04 달빛 Moonlight
- 05 모란이 피기까지는 Until peonies bloom
- 06 화 Anger
- 07 비 갠 뒤 After rain



대표 서유석(국악그룹 동화 대표)
출연 김문섭, 고윤진, 최진영, 박경진,
나형진, 이유정

김희진의 전통춤 '시월을 그리다(花鳥風月)'

'Draw October Landscape(Hwajopungwol)' Korean Traditional Dance by Kim Huijin

2014. 10. 1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무용과 민속무용 그리고 창작무용에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의 전통 풍류 춤판이다.

첫 무대를 여는 춤은 전라도 권번에서 추어졌던 수건춤으로 섬세한 발 디딤과 흥이 묻어나는 고운 춤사위의 '동초수건춤'을 선보인다.

이어서 기본 춤을 바탕으로 허튼 가락에 즉흥적으로 추는 '화선무'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태평무', 우리 전통 무속의 예술적 표현인 '지전춤', 단아한 형식미와 구속된 내면의 아름다움을 두루 담고 있는 '산조'와 민요 장단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흥겨운 설장구 가락이 돋보이는 '장구춤'이 이어진다. 끝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인 '호남 살풀이'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전통무용과 민속무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흥과 멋이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 할 것이다.

Kim Huijin who actively performs crossing genres of classical, folk and modern contemporary will present Korean traditional dance numbers. 'Dongchosugeonchum', a dance piece performed by courtesans in Jeolla Province, involved wavings of a white cloth and delicate steps lifts the curtain. What follows are 'Hwaseonmu', an impromptu dance with instrumental solo and 'Taepyeongmu' a dance to wish great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country. 'Jijeonchum' which is an artistic expression of Korean shamanism will be staged. 'Sanjo' in which performers release elegant formality of movements and express inner beauty in a retrained manner. In 'Jangguchum', beautiful dance moves will be presented to the light-hearted rhythms of Seoljangu (drum solo). The program will conclude with 'Salpuri of Honam Regio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5 of North Jeolla Province. In this stage, dancers will leave a joyful yet deep impression to the audience by displaying traditional and folk dances in harmony.

공연순서 PROGRAM

- 01 동초수건춤 Dongchosugeonchum
- 02 화선무 Hwaseonmu
- 03 태평무 Taepyeongmu
- 04 지전춤 Jijeonchum
- 05 산조 Sanjo
- 06 장구춤 Jangguchum
- 07 호남 살풀이춤 Salpurichum of Honam Region



대표 김희진(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 살풀이 이수자)
사회 박건희(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무용과 학과장)
출연 김희진, 김민경, 박소현, 김연선,
제갈숙영, 최은혜, 김유미

가을이 오는 길목에 춤으로 수놓다

Decorate Fall with Beautiful Dance Moves

2014. 10. 25.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조남규·송정은 무용단이 1991년 창단 이래 극찬을 받은 전통 작품과 창작 작품을 〈가을이 오는 길목에 춤으로 수놓다〉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꾸몄다.

첫 무대는 중후한 무대와 화려한 색채감으로 무용수들의 등장 자체만으로 탄성을 자아내는 '태평성대'로 시작한다. 이어서 흥과 신명으로 악기와 춤이 하나가 되는 '장고춤', 우리나라 사람의 한이라는 정서와 정·중·동의 절제미를 가장 잘 표현한 '살풀이춤'으로 무대를 예술적 감성으로 채운다. 다음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한 떨기 꽃을 서정적인 춤으로 표현한 '바람꽃'과 궁중정재의 검무를 세련되고 감각적인 춤사위로 재탄생시킨 '검기무', 북을 어깨에 메고 양 손에 북채를 쥐 채 춤을 추는 '진도북춤', 한 여인의 희노애락을 서정적인 분위기와 정중동의 미학이 잘 어우러져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작품인 '여령무'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극찬을 받는 화려한 '부채춤'으로 무대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Under the title of 'Decorate Fall with Beautiful Dance Moves', Cho Namgyu and Song Jeongeun Dance Company presents traditional and creative dance pieces that have been highly acclaimed since its foundation in 1991.

The program begins with 'Taepyeongso' in which stately dance steps and dancers' splendid look drew exclamation from the audience. What follows is 'Janggochum' which leads the audience to the merriment and mirth through dynamic dance moves incorporated into musical accompaniment. 'Salpuri', which represents sorrow of the Korean and moderation beauty of jeong-jung-dong (stillness in movement), fills the stage with artistic sensitivity. In 'Windflower', dancers describe a flower swaying in the wind with delicate gestures. 'Geomgimu', a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word dance performed at the royal court, shows sophisticated and sensual dance movements. 'Jindo Bukchum' of which a dancer strapping an hourglass drum across her shoulder and holding sticks in both hands performs cheerful dance. A noble and elegant piece, 'Yeoryeongmu' depicts a woman's 'huinoaerak'(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through both movement and stillness in a lyrical mood. Lastly, splendid 'Buchanchum' which always received rave review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will elaborate the ending of the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성대 Taepyeongso
- 02 장고춤 Janggochum
- 03 살풀이 Salpuri
- 04 바람꽃 Windflower
- 05 검기무 Geomgimu
- 06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7 여령무 Yeoryeongmu
- 08 부채춤 Buchaechum



대표 조남규(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예술감독·안무 송정은(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출연 이성희, 박수정, 김은지, 김해란, 이지연, 안예은, 최경애, 남승리, 권아림, 김지현, 문희선, 최여진, 백재경, 유지혜, 박지예, 양승욱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

Yeoyeonhwajaesu(如蓮花在水): Like a lotus flower floating on the water

2014. 10. 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여연화재수(如蓮花在水)라는 제목으로 물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서 꽃피운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태평무를 시작으로 삼면에 놓인 북을 치면서 추는 춤으로 강렬한 울림과 다채롭고 화려한 기교가 특징인 삼고무가 이어진다. 이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춤으로 양손에는 깃털로 장식된 꽃그림의 부채를 들고 여러 아름다운 모양을 표현하며 추는 부채춤, 선홍색 꽃 장고를 메고 농악반주에 맞춰서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운 동작의 춤사위가 특징인 장고춤이 펼쳐진다. 오늘의 마지막 공연은 신명나는 사물연주와 무희들의 춤사위로 모두가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으로 빠져드는 사물놀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Under the title of Yeoyeonhwajaesu(如蓮花在水),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art that has blossomed like a lotus flower floating on the water in the long history of Korea will be presented.

Taepyeongmu, a dance wishing a great peace for the audiences will begin the stage. In 'Samgomu', dancers display various and elaborate skills while playing three drums hung on three sides of a wooden frame. One of widely loved dance genres, 'Buchachum' of which dancers with decorative feathered fans drawing a variety of beautiful shapes will be performed in sequence. What follows is 'Janggochum' in which performers crossly wearing janggo, a hourglass-shaped drum on their shoulders and show beautiful dance moves to Nongak (literally, farmer's music) accompaniment. Lastly, exciting percussion ensemble, 'Samulnori' along with dynamic movements of dancers will leave a lasting impression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삼고무 Samgomu
- 03 부채춤 Buchaechum
- 04 장고춤 Janggochum
- 05 사물놀이 Samulnori



대표 장윤실(평화예술단 연 단장)

출연 이재일, 김성희, 이금주, 한윤지, 김은정, 김연숙, 김예영,
김보연, 조주희, 홍연지, 제인애, 조종희, 양지원, 전한희,
이소현, 장태연, 김명주, 강두리, 구미경

신명나는 탈춤 한마당 양주별산대놀이

Exciting Mask Dance Performance 'Yangju Byeolsandaenori'

2014. 10. 12.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의 대표 탈놀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 되어 오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를 선보인다. 산대놀이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로 서울·경기 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놀이이다. 이 놀이는 약 250여 년 전부터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칠월 백중, 팔월 추석 등 크고 작은 명절과 비가 오길 기원하는 기우제 행사 때에 주로 공연되었다. 놀이는 전체 8과장 8경으로 구성되었지만 오늘 공연은 관객들의 무사함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무인 제1과장 상좌춤을 시작으로 깨끼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제2과장 움중과 상좌, 서민생활의 애환과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제5과장 3경 애사당 법고놀이, 타락한 권력의 한 부분을 풍자한 제7과장 2경 포도부장놀이를 공연한다. 마지막은 탈을 착용하지 않고 추는 탈춤으로 출연하는 인물들의 개인 춤사위를 재구성하여 창작한 모듬깨끼를 보여줌으로써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In this program, Korea's representative mask dance drama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in Yangju, Gyeonggi-do, 'Yangju Byeolsandaenori'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2) will be presented. Sandaenori refers to mask dances performed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n peninsula; is a branch of Sandaedogamgeuk Play enjoyed by people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As a performance opened to public, sandaenori consists of dances, pantomimes, well-wishing remarks, and comicalities. Since about 250 years ago, this particular performance has been presented primarily on various festive days such as Buddha Birthday in April, Dano in May, All Souls Day in July and Chuseok in August as well as in a ceremony praying for rain. The entire show is composed of 8 acts and 8 scenes. The play begins with 'Sangjwachum' which is ritual dance praying for the safety and happiness of the audience. What follows are 'Omjung and Sangjiwa' in which dancers perform kkaekkichum featuring exquisitely suggestive movements; 'Aesadang beopgonori' describing sorrow and joy of the lives of the public in a depraved society; and 'Podobujangnori' a satire on corrupt authority. The finale will be 'Modumkkaekki' which is a creative performance reorganizing individual character's dance moves. During this performance, dancers without wearing masks will bring lots of excitement to the stage through various dance steps.

공연순서 PROGRAM

- 01 상좌춤 Sangjwachum
- 02 움중과 상좌 Omjung and Sangjiwa
- 03 애사당 법고놀이 Aesadang beopgo nori
- 04 포도부장놀이 Podobujang nori
- 05 모듬깨끼 Modumkkaekki



대표 김순옥(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장)

연출 김순희

출연 석종관, 김순홍, 박기운, 유명선, 손춘식, 이상근, 고경민, 박진현, 한은옥, 이윤희, 이수현, 이용원, 이옥중, 김동현, 손은옥, 현바름, 김현수, 김장우, 윤동준, 최수지, 권순창

활력소를 드립니다. 신명나는 연희한판! '도리판Good'

Invigorating traditional performances! 'Doripan Good'

2014. 10. 19.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여성타악연희그룹 '도리'가 노래(歌), 춤(舞), 연주(樂), 놀이(戲)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축원덕담소리와 나쁜 액을 막아주는 액막이 타령을 선보인다. 이어서 웅장한 북의 울림이 꽃향기처럼 퍼지며, 여러 가지 리듬 속에 여러 명이 하나 된 화려한 동작으로 북을 두드리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화향(花響)-꽃의 울림, 인간문화재 故 박병천 선생에 의해 풍물, 판소리, 굿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장단으로 승화된 진도북춤이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머리로는 상모를 돌리고 손으로 악기를 치며, 악기 하나하나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며 여성타악연희그룹 '도리'만의 색으로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동작과 여성미가 돋보이는 도리판Good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Female percussion group 'Dori' presents a stage consisting of singing, dancing, playing and performing.

The program begins with 'Chukwondeokdamsori' literally, a song of well-wishing remarks in which performers wish all the audience good fortune and best of luck, later a folk ballad that is sung to ward off evil 'Aekmaegitaryeong'.

In 'Hwahyang - The Echo of Flowers', a group of percussionists display a powerful drum performance using elaborate hand gestures over dynamic rhythms. The audience may appreciate the rich resonance of drums transmitted through the air like the fragrance of flowers spreads out. What follows is 'Jindobukchum', a drum dance in Jindo province that has been sublimated into Pungmul (a tradition of rural folk percussion), Pansori (a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Gut (a shamanic ritual) and etc by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 late Mr. Park Byeongcheon. 'Doripan Good' featuring unique style of the group 'Dori' with elegant dance moves and feminine beauty will conclude the program. Performers will elaborate the finale by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spinning their streamer hat simultaneously.

공연순서 PROGRAM

- 01 굿 'Luck' Taepyeongmu
- 02 화향(花響)-꽃의 울림 Hwahyang - The Echo of Flowers
- 03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4 도리판good Doripangut



대표 이나름(여성타악연희그룹도리 대표)
출연 정지영, 이나름, 윤소영, 윤빛보리,
김나영, 안나경, 김라영, 류수민

신명나는 화성 두레굿과 무동놀이

Exhilarating Hwaseong Duregut and Mudongnori

2014. 10. 26.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화성지역에서 농업생산을 위한 공동노동조직이었던 두레를 기반으로 한 풍물굿, 소리굿 등을 발굴, 복원하여 공연 형태로 재구성한 화성두레판굿을 선보인다.

화성지역은 예로부터 풍물굿을 두레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이 두레굿은 풍물뿐만 아니라, 지경다지기(집터를 닦을 때 무거운 돌로 땅을 내리치는 행위)나 모내기, 김매기 등의 공동노작사의 노작요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화성 두레굿은 세시풍속의 흐름에 따라 집터를 다지는 '지경다지기'로 시작하여 판굿을 진행하고 뒷놀이로 소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상모놀이, 무동놀이 등의 다양한 개인놀이로 마무리 한다.

특히, 화성두레보존회의 무동놀이는 그 다채로움과 기술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In this program, 'Hwaseong Durepangut' which has been reconstructed in a type of performance by identifying and restoring pungmulgut and sorigut both were rooted in dure, a collective laboring oper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Hwaseong region will be presented.

Since ancient times, pungmulgut has been called as dure in Hwaseong region. Duregut includes not only pungmul (a Korean folk music tradition), but nodongyo (work songs) as well. Nodongyo refers to songs sung in paddies when doing jigyeongdajigi (an act of striking the ground with large rocks to prepare the construction site for a house), monaegi (rice transplanting) or gimmaegi (weeding).

The firstly staged is Jigyeongdajigi, a performance representing the consolidation work for a house building and then, various individual performances such as Sogonori, Beonanori, Yeongdubal Sangmonori and Mudongnori will be followed in the course of seasonal customs of Korea. Especially in Mudongnori, the audience may fully appreciate the diversity and skills that the members of Hwaseong Dure Preservation Society have.

공연순서 PROGRAM

- 01 화성 두레 판굿과 소리굿 Hwaseong Durepangut and Sorigut
- 02 개인놀이와 버나체험 Individual performances and Experiencing Beona (Spinning hoops and dishes)
- 03 무동놀이 Mudongnori



대표 안병선 (총연출)

예술감독 황삼열 (기획, 연출)

출연 안병선, 황삼열, 김성자, 이경희, 최혜자, 신현경, 김주희, 심명숙, 강으뜸, 한상은, 김한결나, 황지현, 황지원, 정제훈, 오채빈, 심민우, 강영호, 김유영, 최관용, 권강현, 신현정, 김수빈, 김수현, 한기태, 홍희정, 홍영주, 황희민, 홍태우 등

